

25년 전 比 광주·전남 출생아 58% ↓

호남통계청,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 자료

20대 후반 출산율 급감·35세 이상 고령산모 증가

25년 전과 비교해 광주와 전남 지역 출생아수가 5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광주지역의 출생아 수는 9105명으로 25년 전인 1993년(2만2062명) 대비 58.7%(1만2957명) 감소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93년 1.81명에서 2000년 1.64명, 2010년 1.22명, 2018년 0.97명으로 하락곡선을 그렸다.

광주는 2010년 이전에는 전국 평균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았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소폭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에서는 20대 후반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1993년 195.1명에서 2018년 40.8명으로 줄어든 반면 30대 초반은 69명에서 91.4명으로, 30대 후반도 15.8명에서 44.1명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30대 후반의 출산율은 20대 후반 출산율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8년 평균출산연령은 32.6세로 1993년 대비 5.1세, 2005년 대비 2.6세 증가했고, 2018년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3.9%로 1993년 대비 28.5%p, 2005년 대비 20.3%p 상승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부터 저출산 현상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인구 진입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14세 유소년인구보다 많아, 204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3.6배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 역시 광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지역 2018년 출생아 수는 1만1238명으로 1993년(2만6912명) 대비 58.2%(1만5674명) 감소한 것

으로 집계됐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1993년 1.64명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출생아수는 도시지역이 군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반대로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전남의 연령별 출산율은 20대 후반 출산율이 72.2명에서 63.3명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30대 초반은 110.3명으로 가장 높았다.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8년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8.0%로 1993년

대비 24.1%p, 2005년 대비 17.6%p 상승했다.

2018년 평균출산연령은 32.2세로 1993년 대비 5.1세, 2005년 대비 2.6세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93년 9.3%에서 2018년 21.8%, 2047년 4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4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6배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화밭에서 원만한 가을날씨를 보인 17일 오전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경관단지에서 노란국화가 활짝 피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이 국화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 '출렁다리' 공사 놓고 시민단체와 대립

허석 순천시장이 봉화산에서 동천으로 위치를 변경해 추진 중인 출렁다리 공사의 강행의지를 표명했다.

허석 시장은 16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순천YMCA 회의실에서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출렁다리 공사와 관련된 각 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옥서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전임 시장의 적폐인 출렁다리 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았다"며 "심지어 수의계약도 교묘하게 분리해 집행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매몰처리해 공무원의 책임행정 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작부터 문제가 된 출렁다리를 위치만 바꿔 건설하기로 한 것은 공직자들이 시장의 눈과

귀를 막은 사례"라며 "공직자들이 돈과 권력에 비굴해지는 모습에 비해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렁다리 공사의 매몰 비용이 결코 손해만은 아니다"며 "공사 강행 결정을 보고 허시장이 전임 시장과 아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지적에 허 시장은 "출렁다리 문제는 시민들께서 믿음을 갖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시청 간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속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외부에서 적폐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도 버거

운 상황에서 내부의 문제까지 제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며 "시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 만큼 이제 순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렁다리 공사는 당초 30억원(교량 25억원+철쭉동산 등 부대공사 5억원)을 들여 봉화산 둘레길의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봉화산 둘레길에 순천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순천만정원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려는 명분으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업체 선정과정의 잡음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었고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온라인 추첨

올해부터 국·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원아모집 접수와 추첨을 온라인으로 하는 '처음 학교로'를 이용해야 한다. 처음 학교로는 다음 달 개통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교육신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수·추첨·등록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겼지만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해당 시스템 이용 시 국·공립유

치원과 모집경쟁 불리함을 내세우는 바람에 이용률이 저조했었다.

하지만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 제공 요구가 커지면서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학부모들은 개통일 처음학교로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11월5~7일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모집 접수를 실시한다. 우선모집 추첨·발표일 11월12일, 등록은 11월13~14일이

다. 일반모집 접수는 11월19~21일 진행된다.



이슈 판결

직장 선배 약혼녀 강간 시도하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법원 "잔혹하고 비정...사회로부터 격리해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선배의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5월27일 직장 선배인 A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들자 A씨의 약혼녀인 B씨(42)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선배와 술을 마시다 선배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B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어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표, 자필치료 용인 민허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성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